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가로지르는 지적 모험

《비평기계》 펴낸 고미숙씨



고전문학연구자로서 현대문학평론을 꾸준히 발표해온 고미숙씨(40, 문학평론가)가 평론집 《비평기계》(소명출판)를 펴냈다.

“그동안의 지적인 방향과 편린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사이에 가로놓인 분절선을 뛰어넘고 싶은 제 욕구가 담겨있는 책이지요.”

사설시조와 잡가에 빠져 있던 그가 현대문학평론에 뛰어들게 된 것은 5년 전 이인화씨의 ‘동아시아문화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부터다. ‘동아시아문화론’에서 논거로 삼은 텍스트들이 그의 전공분야인 조선시대 작품이었던 게 논쟁에 뛰어든 계기였다.

“우리의 현대문학평론은 인식론적인 기저가 약한 것이 흠입니다. 근대 백년 역사를 토대로 문학을 바라보면 좀더 깊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평론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경계를 중횡무진 넘나든다. 예컨대 이경자씨의 《사랑과 상처》는 조선후기 서사가사에 등장했던 <덴동어미>와의 동질성과 차이점에 의해 더 풍부한 의미를 얻게 된다. 이 작품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분석한 다른 평론가들의 글에 비해 확실히 ‘튀는’ 평론이다.

고전문학을 전공한 여성평론가라는 사실은 그의 작업을 외롭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평론계에 인맥이 없다는 점은 마음놓고 비판이나 공격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미

귀틀집 짓는 법 일러주는 친절한 길라잡이

《흙과 통나무로 짓는 생태건축》 펴낸 강준모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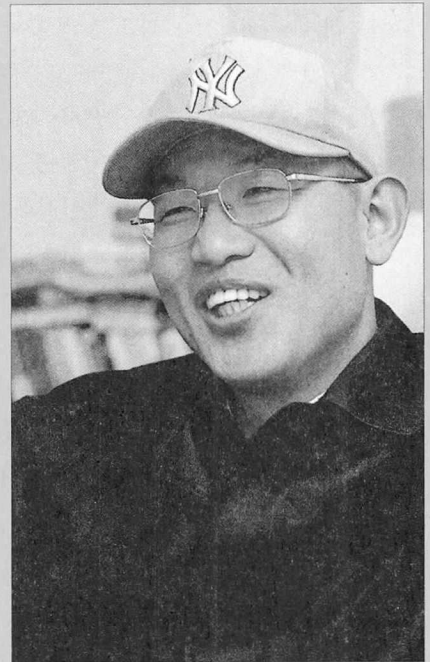
최근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도시에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자연으로의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기왕에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집을 짓는 일도 한번쯤 생각했을 법하다. 그들을 위해 우리 고유의 건축술로 집을 짓는 목수 강준모씨(35)가 자연친화적 주택 시공 가이드 《흙과 통나무로 짓는 생태건축》(발인)을 펴냈다.

“누구나 일주일만 배우면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지을 수 있습니다. 흙과 통나무만 준비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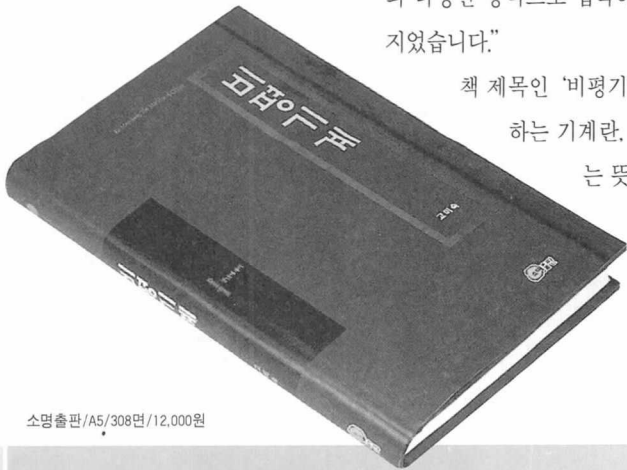
그가 누구나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집은 귀틀집이다. 그는 강원도 산골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귀틀집을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재현한 집을 보급하고 있다. 그가 귀틀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생태건축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이 고조될 무렵이었다.

“서양식 통나무 집을 짓고 있을 때, 청주에서 귀틀집을 짓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려갔죠. 그런데 장마철이라 집을 짓지 않았어요.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귀틀집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서관에서 찾아낸 자료는 고작 귀틀집을 개괄하는 서너 줄의 글귀와 통나무 벽체 한 귀퉁이에 헤진 망태기가 걸린 채 다 쓰러져가는 귀틀집을 찍은 사진 정도였다.



“평론이라는 텍스트는 글을 쓰는 순간 이미 ‘나’ 라는 주체로부터 독립합니다. 제 텍스트가 읽는이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서 여러 의미를 촉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제목도 그런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소명출판/A5/308면/12,000원

평론계에서 그의 평론은 과감하고 다분히 공격적이라고 정평이 나 있다. 이런 점은 현대문학평론에 대한 그의 비판적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제 평론에서 드러나는 공격성이나 장난기들은 아카데미하고 확일적인 평론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위 있고 중후한 글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지식인을 얹매는 일종의 권력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의 확일적인 코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문체와 표현들을 개발해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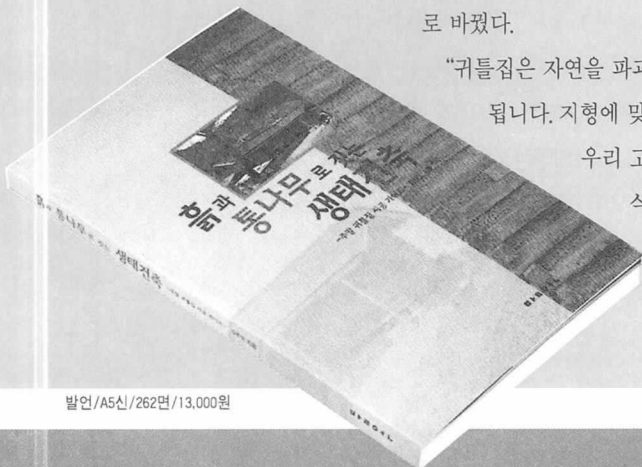
그는 자신의 평론이 비판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써어진 글은 칭찬을 받든 욕을 먹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읽는이들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다.

“평론이라는 텍스트는 글을 쓰는 순간 이미 ‘나’ 라는 주체로부터 독립합니다. 제 텍스트가 읽는이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서 여러 의미를 촉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제목도 그런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책 제목인 ‘비평기계’에서 ‘기계’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계란, 사물과 사물의 다양한 접속과 배치에 따라 다양한 변이와 해석이 생성된다는 뜻이다. 그는 이번에 펴낸 책을 계기로 연구영역을 중세에서 근대로, 문학에서 역사로 옮겨볼 생각이다. 경계넘기의 ‘끼’를 못참고, ‘지식의 횡단여행’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의 경계넘기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기대된다.

— 김정은 기자

“우리 땅에서 나는 흙과 나무를 재료로 귀틀집을 짓는 동안 우리 전통 건축술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됐습니다. 실수를 거듭하다가 아예 귀틀집 짓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남기자고 생각했습니다.”



발언/A5신/262면/13,000원

하지만 그는 그 낡은 사진 속에서 우리 전통 살림집의 고유한 멋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현대 건축술로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견했다. 이후 그는 귀틀집 짓는 일에 직접 뛰어들었다.

“우리 땅에서 나는 흙과 나무를 재료로 귀틀집을 짓는 동안 우리 건축술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됐습니다. 실수를 거듭하다가 아예 귀틀집 짓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남기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글과 그림으로 귀틀집 짓는 방법을 설명했다. 자재준비부터 공구사용법, 터 고르기, 통나무 얹기, 흙벽 쌓기, 그리고 짜투리 통나무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조목조목 설명하는 동안 그는 우리 전통 살림집의 장점을 누차 강조했다.

“귀틀집은 서양 건축에 비해 공정이 간편합니다. 온난방이 좋고 생태학적으로도 자연친화적입니다.”

그는 이미 사라진 우리 전통 건축술도 몇 가지 재현했다. 통방아와 통나무 굴뚝 등이 그것이다. 또한 그는 건축에 쓰이는 서양 또는 일본식 건축용어를 우리 식으로 바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이를테면, 위와 아래에 놓이는 통나무를 ‘엮을 장’과 ‘받을 장’으로, 일본식 용어인 ‘가다’를 ‘목들’로 바꿨다.

“귀틀집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지을 수 있습니다. 비탈에 집을 지을 경우 땅을 깎거나 파지 않아도 됩니다. 지형에 맞춘 형태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 고유의 건축과 자연친화적 생태건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는 앞으로 수공식 통나무 주택을 짓는 이론서와 우리 땅에서 자라는 나무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책도 펴낼 계획이다. 우리 전통 살림집의 고유한 멋을 재현하려는 젊은 목수의 노력이 싱그럽다. — 오완진 기자

마니아적 애정과 학문적 열정 담은 만화평론집

《만화 세상을 향하여》 펴낸 이재현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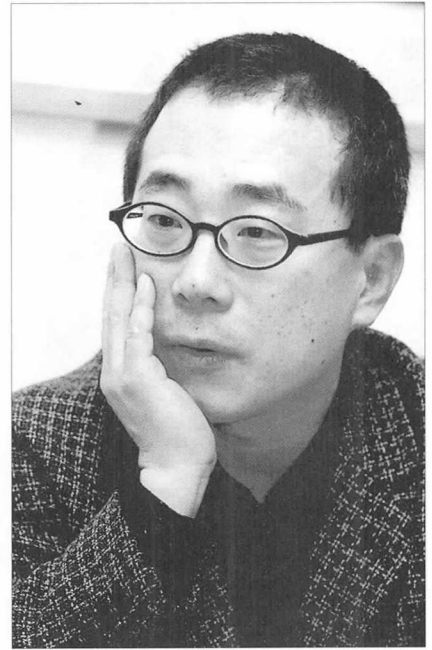
만화에 대한 일반인의 몰이해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땅에서 만화평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굳이 비평을 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마니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에 대해 비평가에 버금가는 지식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비평을 읽지 않는다. 연재에 바쁜 작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만화를 평론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영화평론이 있듯 만화평론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 무책임한 소리겠고...”라며, 이번에 만화평론집 《만화 세상을 향하여》(푸른미디어)를 펴낸 이재현씨(42)는 말한다.

“만화는 뜨거운 미디어입니다. 다른 어떤 예술보다 텍스트와 수용자의 거리가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비평적 거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제는 체계를 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끊임없이 토론했듯 서지사항조차 파악할 수 없는 우리 만화의 형편상 만화평론은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책은 깊이 있는 학문적 분석틀을 이용해 만화에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오세영·이희재·박홍용 등 우리 만화가의 작품을 비평적 시각으로 접근한 제2부의 글들이 바로 그런 노력의 성과다.

“사실 청소년보호법 등 우리 만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야만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죠. 제2부에서 분석한 작품들은 우리 만화계를 이끌어가는 작



허무의 심연 넘어서는 틈새의 시학

《중독된 사랑》 펴낸 박서진씨



“작은 틈이 있다/작지만 깊은 틈이 있다/세상은 틈투성이고/나는 늘 틈새로 무언가를 빠뜨리고, 잃어버렸다”(《틈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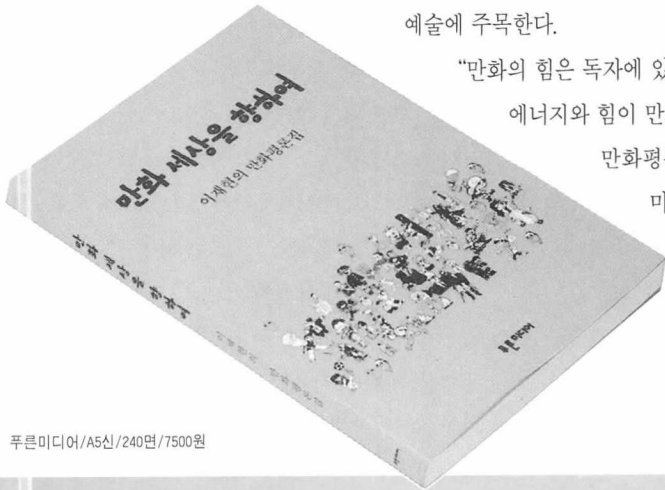
작지만 깊은 틈에 늘 무언가를 빠뜨리고 잃어버리는 일, 그것은 인간의 숙명에 대한 메타포로 읽힌다. 그 틈은 저승의 문턱에서 뒤돌아본 오르페우스 앞에 입을 벌리고 있던 아득한 심연이거나, 우리 욕신을 수시로 넘나드는 욕망의 얼굴인지도 모른다. 시인 박서진씨(28)가 첫시집 《중독된 사랑》(문학아카데미)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틈새의 시학’이다.

“인간들 사이에 가로놓인 벽과 틈새, 거리감이 제 시의 주된 모티브입니다.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인간관계는 단절과 소외감으로 나타납니다. 그 틈을 인식하면 할수록 배우고 싶은 욕망도 또한 커지지요.”

“알 수 없는 허기에 빵을 먹”어보지만 “목이 메”이는 삶의 정경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입 안에서 한 말(言)이 다른 말(言)의 꼬리를 잡고/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허영거리고 푸드덕거리며 싸”우기도 하고, “주문을 잊”어버린 “아이는 영영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삶의 허무가 깊을수록 사랑과 결합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렬해진다. 그래서 “얕은 조각들이 서로의 상처를/보듬어 안”거나 “허기진 내 마음에 메꾸어 넣을” “텅빈 곳에서 울

**“이 책에서 저는
대중문화라는 넓은 맥락에서
특수한 문화인 만화를
읽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대중의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만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본질을
읽어내려고도 노력했죠.”**



푸른미디어/A5신/240면/7500원

가들의 대표작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는 이들이 그다지 많은 작품을 발표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만화의 리얼리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아무래도 그의 이력에서 비롯하는 듯하다. 이제현씨는 문학평론으로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1980년대 진보진영에서 그의 문학평론은 널리 읽혔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그의 시선은 문학에서 대중문화 일반으로 바뀌게 됐다.

“월간 《말》의 편집위원을 하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엘리트문화의 관점에서 벗어나자 대중문화의 다양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마침 그 즈음,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문학평론보다는 독자가 많아 문화평론을 하게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요.”

그의 만화 이력은 1987년 이희재·위기철·김창남 등과 《민중만화》를 만들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그 시절에는 사상의 도구로서 만화라는 장르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대중의 향유물로서 만화라는 예술에 주목한다.

“만화의 힘은 독자에 있습니다. 만화방에 가면 누구나 사회적인 가면을 벗고 웃음을 터뜨리죠. 그 에너지와 힘이 만화를 만들어갑니다.”

만화평론가인 그가 우리 만화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일까? 그렇게 재미있는 만화책이 너무 늦게 출간된다는 점이다. 시리즈는 한달에 한권씩 출간되는데, 그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길다. - 김연수 기자

**“일상의 사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찾는
시가 숨어 있어요. 저는 단지
그 사물이 품고 있는 의미를
시로 표현할 뿐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쳐버리지만
찬찬히 새겨보면 그 속에
신비로운 꿈과 말들이
숨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리는 채워진 말들”을 “듣고 싶”어한다. 이 시집을 단순히 허무와 욕망의 탄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은 일상의 사물과 생애적 감수성을 기위하는 시인의 능란한 비유와 언어의 힘에 있다.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는 않았어요. 제 일상의 얘기에서 출발해 보편적인 정서에 닿으려고 했어요. ‘낮설게 하기’ 처럼 늘 마주치는 하찮은 일상의 소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고 한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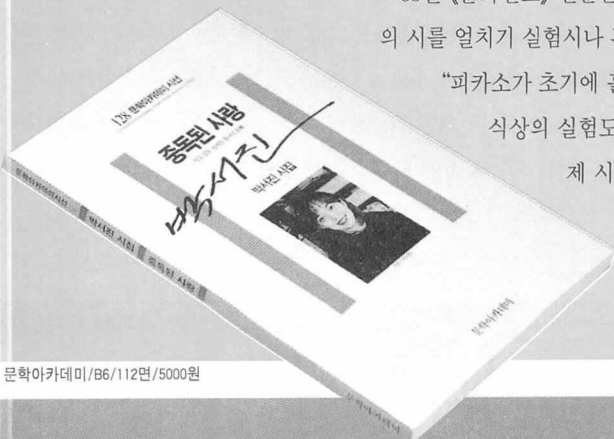
그래서 그의 시에는 냉장고 속에 시들어가는 케첩과 김치와 우유,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개털, 무관심 속에 말라가는 선인장 등이 무심한 듯 배치된다. 하지만 그들은 일상의 소도구가 아니라 어느새 정교한 의미체로 환생한다. 부쩍 늘어나는 전화카드, 미장원 회원카드가 어느새 “삼십일을 열심히 살고 나면 하루가 보너스로 적립되는 수명카드”로 몸을 바꾸듯이.

“일상의 사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찾는 시가 숨어 있어요. 저는 단지 그 사물이 품고 있는 의미를 시로 표현할 뿐입니다. 가끔 가다 하늘을 보고 놀라는 경험을 하잖아요.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쳐버리지만 찬찬히 새겨보면 그 속에 신비로운 꿈과 말들이 숨어 있음을 깨닫는 것과 같지요.”

95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그는 그동안 시의 정통문법에 충실한 작품을 써왔다. 이것이 그의 시를 얼치기 실험시나 혼자만 판독할 수 있는 난해시로 떨어뜨리는 위협에서 지켜온 힘이 됐다.

“피카소가 초기에 훌륭한 구상화를 그리고 난 후 추상화를 그렸듯이, 시문법에 충실하고 나서 형식상의 실험도 의미가 있겠지요. 형식부터 손대기 시작하면 시가 망가질 염려가 있거든요. 제 시가 농익었다 싶을 때까지는 계속 기초에 충실한 시를 쓰고 싶습니다.”

- 박천홍 기자



문학아카데미/B6/112면/5000원